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⑭

若於生死中得自在 轉一切法
약어생사중득자재 전일체법
與聖人神通 自在無碍
여성인신통 자재무애
無處不安 若心有疑
무처불안 약심유의
決定透一切境界不過
결정투일체경계불과
不免生死輪廻 若見性
불면생사윤회 약견성
諸佛 亦得成佛
전다라 역득성불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재함을 얻어 모든 법을 전하고 성인의 신통처럼 자재하여 걸림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만약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코 일체의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생사의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만약 견성한다면 전다라 같은 백정도 성불할 수 있느니라."

問云 殺生作業 如何得成佛
문왈전다라 살생작업 여하득성불

물었다. "전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걸림 없으면 편하지 않는 곳 없다

마음을 알면 한 글자 몰라도 부처

答曰只言見性
답왈지언견성
不言作業 縱使作業
불언작업 종사작업
不同迷人一切業拘他不得
부동미인 일체업포타부득
從無始劫來 只爲不見性
종무시광대겁래 지위불견성
墮在地獄中 所以作業
타재지옥중 소이작업
輪廻生死 悟得本性
윤회생사 오득본성
從不作業 若不見性
종불작업 약불견성
念佛免報不得 非論殺生
염불면보부득 비론살생
若見性 疑心卽除
약견성 의심돈제
殺害生命 亦奈何他不得
살해생명 역내하타부득

지은 까닭에 생사에 윤회한 것이지만 근본 성품을 깨달으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염불을 한들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살생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견성하여 마음의 의혹을 없애버리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自西天二十八祖
자서천이십팔조
只是遞傳心印 吾今來此土
지시체전심인 오금내차토
唯傳頓教卽心是佛
유전돈교즉심시불
不言持戒精進苦行
불언지계정진고행
乃至入水火登刀輪
내지입수화등도륜
一食長坐不臥
일식장좌불와
盡是外道有爲之法
진시외도유위지법
若識得佛爲運動靈覺之性
약식득시위운동영각지성
汝心卽諸佛心 前佛後佛
여심즉제불심 전불후불
只言傳心 更無別法
지언전심 경무별법
若識此心 一字不識亦是佛
약식차심 일자불식역시불
若不識自己靈覺之性
약불식자기영각지성
假使身破微塵 見佛終不得也
가사신파미진 멱불종부득야

대답했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업을 짓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짓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오직 견성하지 못했기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업을 인도의 28명의 조사들도 오직 심인(心印)을 전하였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돈교(頓教 : 금방 깨달음을 얻는 교), 즉 마음이 부처라는 법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지계(持戒)·정진(精進)·고행(苦行)이나 나아가 불이나 물에 들어가는 법과 칼산에 오르는 것, 또는 한 끼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두 외도의 유위법이다. 만약 분별하고 운동하며 신령스럽게도 깨달아 아는 그 성품을 안다면 바로 그대 마음이 모든 부처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이 마음 전하는 법을 말했지 다른 법은 없다. 만약 마음을 알면 한 글자도 몰라도 부처니라. 그러나 자기의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을 모르면 설사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헛일이니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큰 스님과의 대화

범룡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우리도 부처님같이" 불기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불자들은 누구나 부처님처럼 살기를 희망하며 성불에의 원(願)을 새롭게 세운다. 색신으로 몸을 나투시어 무명중생들에게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일깨운 인류의 대스승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자비의 등, 지혜의 연등으로 온통 아름답게 장엄된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에는 일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범룡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다.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의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인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맡고계시는 범룡스님을 뵙기 위해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을 찾은 날은 대웅전 처마에 매달린 풍경소리가 유난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마치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처럼 싱그럽게 들려왔다. 세수 87세의 범룡스님은 비로암의 비로자나부처님처럼 자애로운 미소가 얼굴 가득해 뵙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 지고 평화로워졌다.

"부처님과 똑같이 되세요"

- 1914년 경북 명산 生
- 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1년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 성만
- 80~81년 동화사 주지 역임
- 94~96년 봉암사 조실 역임
- 99년 11월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추대
- 현재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

-만해스님께서는 '부처님 나삼은 온 누리의 빛이요, 뭇 삶의 목숨이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세상살이는 더 각박해지고 인간성은 메말라가며 대립과 갈등, 탐욕과 분노가 중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시대,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인사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불하세요'예요. 이 말 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되라는 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직후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선언하셨지요. "하늘위와 하늘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속에 잠겨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인류에게 희망을 준 자비선언 이자 인권선언입니다. 비록 무명에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찬란한 불성을 가진 주인으로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마치 밝은 횃불처럼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셨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내세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길을 걷기만 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가 있다고 일깨웁니다. 부처님을 닮고자 서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성불에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지요.

-스님께서는 출가하신지 60년이 넘으셨고 또 전국의 재방선원에서 참선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불교 특히 선이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 인류를 이끌어갈 정신문화의 대안이고 중심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선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참선의 묘미는 어디에 있는지요.

▲어느 혜던가, 부처님 성도절 용맹정진을 일주일간 하는데 그때 삼매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불법이 좋은 줄 알려면 삼매에 들어야 되겠더구만. 삼매라는게 듣고싶다고 드는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일주일동안 용맹정진하다 보니까 저절로 삼매에 들은 거지. 삼매에 들면 마음이 정해지고 육체도 정해지고 눈동자도 정해지고, 눈동자도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서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큰 상시와 다르지요. 보통때는 내가 보겠다는 생각이 그리로 가서 보지만 삼매에 들면 내 눈이 면경이라. 사물이 눈동자에 와 비치니까 보는 게지. 그러니까 무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삼매에 들어 칠일 이칠일 삼칠일 돼 가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건데...

혼자 앉아서 하면 칠일이고 이칠일이고 하겠는데 대중이 모여 앉아서 하다 그렇게 되니까 다리 쥔다고 포행하다보니 그만 멈춰버렸지요. 세시간 정도 삼매에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지껄이는 소리 다 들리고, 모두 와서 이 수좌가 자나 죽었나 눈동자를 뒤집어보고 했어요.

하여간 화두와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들면 그 공부재미가 말할 것이 없지요.

-스님께서는 어느 화두를 드셨습니까?

▲'무'자 화두지요.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 "무(無)" 해버렸거든. 조주스님이 "무" 했는데 조주스님이 부라 했으니 아무 것도 없는 무라 생각하지 말고, 있다, 없다 로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무' 자 화두와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 맘 하고 화두 하고 조금만 떨어져 벌어지면 그저 망상이 나오고 밖에서 잠이 들어오고.... 화두와 내 마음이 하나가 따악 되면 잠도 못 들어오고 망상도 뭇 들어와요. 그러나 이것은 참선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니면 알아듣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지요.

-불자들은 참선 뿐 아니라 간경과 주력, 염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행법으로는 깨닫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이들 수행법과 참선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흔히들 간화선이 최상승의 선이라고 하지요. 최상승 근기를 타고나야 제대로 할 수 있지, 보통이나 낮은 근기를 타고나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근기에 따라 염불이나 간경, 주력을 해도 깨닫겠다는 수행의 목적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는 점이지요. 주력중에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진언이 천수다라니입니다. 진언을 자꾸 외우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틈틈히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자꾸 하면 좋겠어요. 다라니를 하면 내 힘이 반, 부처님 가피력이 반이예요. 요즘 같은 말세에는 중생들이 다라니를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건성으로 하거나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선이 곧 염불이고 염불이 참선이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염불과 참선이 같아요. 염불(念佛)이란 것이 생각 염 자에 부처님 불자 아니예요? 염불 하는 사람이 정말 생각이 염불에 딱 붙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건성으로 염불하면 그게 뭐 아리랑 타령이지, 한번을 해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됐다는 이야기가 경에 있어요. 무슨 수행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처님을 생각하며 일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님들 사이에 지계정신이 자꾸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1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6월 7일(수) 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자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신 간 대조 한글역

범본 極樂莊嚴經

(아미타경 무량수경)

◈ 최봉수 편찬
◈ 가격 20,000원

⊙ 아미타불의 48대 원력의 생생한 가르침 및 극락세계의 정토장엄과 왕생도를 설한 무량수경이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인 극락장엄경으로부터 직접 원음을 듣는다
⊙ 지혜의 보고인 불경이 이제는 불자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경전으로 다가오다. 일반 불자들에게는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를 증득하는 수지독송경으로, 전문불자들에게는 산스트리트 원전과 한역과의 비교를 통해 좀더 심원한 정토세계를 체험하도록 편집하였다.
⊙ 다년간 불교근본경전에 대한 저서를 출간한바 있는 최봉수 교수는 대승불교의 하이라이트 정토부경전인 극락장엄경을 편찬하다.

주문처 전국염불만일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웅진갤러리 3층
☎ 02)732-1215 FAX (02)732-1207
※ 단 한부라도 주문하시면 발송해드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한국정토사 · 무량수경 · 연종집요 ·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 왕생론 · 반주삼매경 무량수경종요 · 보왕삼매론 · 미타예참법 정토미술 · 인도정토사 · 중국정토사	교수진	주명철교수(동국대) · 김영미교수(이화대) 한보광스님(동국대) · 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 대 원스님(승가대) 강동균교수(동아대) · 정태혁교수(동국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 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5월 1일~ 2000년 6월 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6월 1일(목) 오후 7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02)732-12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시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